

전남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박차

국토부, 이달 신청분야 11월 확정 각종 규제완화·국비지원 혜택 항공 인프라 갖춘 고층 최적지

전남도가 올 11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어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대상지를 확정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 허가안

정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정 시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국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신청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고층군이 우선 뛰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km)을 비롯해 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운영 중이다. 유·무인기의 시험과 평가를 위한 국가 종합비행능성시험장도 건설 중이다. 고층 외에도 여수시와 광양시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나설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소형 드론의 세계 시장을 중국이 선점했다고 판단, 중대형 상업용 드론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평가와 실증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반 조성에 열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11월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면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드론 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축된 항공인프라를 참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해 서비스모델이 상용화와 기업 매출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대응 방침이다. 드론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지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11월 결정된다. 드론법에 따라 드론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하고 있으나,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하고,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을 한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특별자유화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드론 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블루 재능봉사단 완도서 봉사활동

전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강숙)가 지난 19일 전남블루 재능봉사단 30여명을 비롯 완도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마을을 방문해 통합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블루 재능봉사단은 올해 '전남 재능기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선정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통합봉사활동에는 음식나눔과 주거개선, 건강지원, 문화공연, 뷰티 등 5개 분야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전남자원봉사센터가 운영중인 이동세탁차와 해양쓰레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허강숙 전남자원봉사센터장은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준 재능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전남 재능봉사자들을 발굴해 참여자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수요자들은 맞춤형 봉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체는 6개 분야 129개 단체로, 재능기부 단체등록과 봉사활동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지열 히트펌프 성능 인증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입주기업인 '앤씨티'와 연계해 전남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한 성능인증을 획득했다. 23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인증된 '밸런스 웰 고차온합 열교환에 의한 스마트냉난방 히트펌프 시스템 (ENBW-200)'은 기존 대비 20% 이상의 냉난방 효율 향상을 비롯 지하수의 외부 방류 방지, 지중열 고차온합 및 ICT 제어 등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 지하수 방류 방지기술은 기존기술 50 RT(냉동)급 대비 연간 5400t의 지하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술로,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공공분야 시장규모는 1500억원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등의 추세로 볼 때 민간분야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중열 히트펌프 시스템 분야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앤씨티'를 포함해 3건밖에 없어, 정부 인증기간 동안 주어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자격을 통해 전남도내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보급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응렬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장은 "환경기술 컨설팅과 분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친환경 그린기술 공동연구개발로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립 전남학숙 학생·임직원 70명 단체헌혈



도립 전남학숙(원장 김석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 18일 30여명의 학생과 직원이 단체헌혈에 참여하고 헌혈 증서를 70여장을 생명 나눔의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광주전남혈액원에 전달했다. 김석원 원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전남학숙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학숙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매년 헌혈 증서를 모아 병원, 혈액원 등에 기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생 및 직원들은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 증서 70여장을 생명 나눔의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광주전남혈액원에 전달했다. 김석원 원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전남학숙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학숙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매년 헌혈 증서를 모아 병원, 혈액원 등에 기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러며 "전남학숙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학숙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매년 헌혈 증서를 모아 병원, 혈액원 등에 기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올 23억원 투입 바이오·에너지 등 주력산업 기업 지원

대학·관련기관 등 참석 협의회 8월 14일까지 지원기업 모집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전남 주력산업 기업들을 지원한다. 지난 19일에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대학, 관련 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2층 회의실에서 총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주력산업 기업 지원은 생물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추진한다. 지원규모는 국비 14억원, 도비 9억원 등 23억원으로 전남에 소재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수행기관 간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위해 산업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통합공고 추진일정, 수혜기업 기술다터 운영방안, 수행기관 네트워크 등이 논의됐다. 전남 주력산업 비R&D 기업지원 수혜

기업 모집 공고는 이달 말부터 8월 14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하여 진행 될 예정이다. 유동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감 있게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력산업 내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주력산업은 바이오헬스케어소재산업, 에너지신산업, 첨단운송기부품산업, 청색·정정환경산업 등 4개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시켜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의 가공소재산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제품(기술)은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물기반 의약품소재, 천연 유기농 향료화 화장품 소재가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초고 수율 전력에 대한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능동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제품(기술)은 IoT(사물인터넷) 집적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전남도 서비스 개시

전남도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이체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하면 해당

과세권이 조화돼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체수수료는 없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뱅킹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된 인터넷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